

전남에 '의대 유치' 청신호

민주당, 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지역 정치권과 동부권·서부권 협력 유치 활동 나서야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15년간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유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0년부터 30년째 의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온 전남도는 올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더불어 의대 유치를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의료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은 향후 단순한 의대생 증원이 아니라 의대의 신설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 서부권과 동부

권이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조율과 협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광주와 대전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으로 체계 전반에 한계점을 나타냈다"면서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보건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줄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단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남도내 의대 설립으로 귀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정치권과 전남도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의료 전문인력

확충, 공공의료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지 목표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에는 대학,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와 함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 및 출범식을 갖는 등 의대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유치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공수처 설치 촉구할 듯
코로나19 극복 협조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 연설 후 약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 그린 뉴딜 협상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일인 15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가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도 촉구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최장 기간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며 "(개원식이 계속 늦춰지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역대 가장 오래 지연됐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2008년 7월 11일, 임기 시작 후 43일만)이 최장 기록이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15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꺾였다

확진자 이틀 연속 하루 한 명 발생
고위험시설 노인 등 2만9천명 검사 전원 음성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한 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고위험 시설에 입소한 노인 등 2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지역발생이 11명에 머무르는 등 23일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2·6면〉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70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2차 유행

이후 지난 13일 한 명, 14일 한 명 등이틀 연속으로 하루 한 명씩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은 오후 6시 현재까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170번 환자는 발생 경로가 일곡중앙교회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감염자였다. 또 지난 13일 확진판정을 받은 169번은 해외 입국자였으며, 이날은 2차 유행 후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0명'을 기록했다. 전체 확진자 170명 가운데 지난달 27일 2차 유행 이후 발생 인원은 137명이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127명인데 3명은 고용량 산소를 공급받는 상태인 중증 환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료진들은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밤낮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광주에선 특히 이날 고위험 시설 입소 노인 등 2만90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회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보건 시설,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양로원 등 260개 시설 입소자 1만7911명과 종사자 1만1352명 등 2만92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만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을 감안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가격리자 관리 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관리전담반을 정비해 주·야간 현장 불시점검 강화, 자가격리 수칙 준수 이행 안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무단이탈자에 대한 즉시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적

발될 경우엔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어 소재지 파악, 격리조치 이행,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시엔 형사고발과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관련해 총 13건을 적발하고, 모두 고발 조치했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막을 수 있는 중대 고비로 판단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격리자 생활불편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코로나 희망 일자리 신청 현황 ▶6만
양현종, 에이스 왕관의 무게 견뎌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 전국 아리따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